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13호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공동성명**

**대한축구협회는 승부조작과 비위행위로 징계 중인 100인의 사면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체육시민연대 칼럼**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된 삶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도 함께 증진되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비리 축구인 사면 철회**

**잇따른 헛발질... 축구협회 수장 정몽규 리더십 치명타**

이준희 KBS 기자

**김포FC 유소년 선수 사망사건**

**유소년 선수 극단 선택 11개월 만에 이뤄진 시장 면담... 김포시, 적극 조치 약속**

김동환 세계일보 기자

**서울중학교 럭비부 학폭**

**럭비부 '학폭'에 피해 학생 꿈 접었는데 보호처분만 받은 가해자는 명문고 갔다**

곽진웅, 백민경, 김소희 서울신문 기자

**홀로 일한다는 공포**

**폭언과 갑질 피해가 일상인 골프장 캐디**

이유진 경향신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대한축구협회는 승부조작 범죄와 비위행위로 징계 중인 100인의 사면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사회는 축구팬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본 사태의 과정과 근거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

“제 살을 깎는 듯한 아픔이 있더라도 축구의 기본정신을 저해하는 모든 암적인 존재는 도려내야 합니다. 어설픈 미봉책으로는 나머지 대부분의 정직한 선수들까지 매도하고 오염시키는 등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의 파문이 이어지던 2011년 5월, 당시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였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발표한 사과문에 나오는 문장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23년 3월 28일, 대한축구협회가 이사회에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임원 등 모두 100명의 사면을 의결했다고 기습 발표했다.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자축’,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 존중’이 사면의 이유다.

도대체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 범죄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사면과 무슨 상관인가? “축하”의 자리에 왜 사면을 들먹이는가! 단지 자신들의 도취감으로 승부조작은 물론, 알 수 없는 수많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말인가? 이들을 사면하면 축구계가 “화합”하는가? 승부조작과 비위행위에 면죄부를 주면 한국 축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가? 어떠한 권한과 권위로 사면을 함부로 결정하는가!

K리그의 승부조작 사건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었다. 승부조작 파문 이후 K리그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아픔을 겪었다. 지도자와 선수가 서로를 믿지 못했고, 팀을 향한 팬들의 신뢰도 무너졌다. 땀 흘려 정직하게 치른 경기도 거짓이 되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까지 벌어졌다. 현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의 상당수가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아는 이들이다. 그런데, 12년 만에 그 아픔을 모두 잊었는가?

지난 12년 동안 K리그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살을 깎는 듯한 아픔”을 감내하고 다시는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 노력을 협회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뛰었다”던 선수를 협회는 잊었는가? 당신들이 말하는 “축구계”와 “현장”에 모든 축구인과 팬들을 뭉뚱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축구협회의 이번 결정은 경기장에서 최고의 경기, 최선의 승부를 위해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모독하고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팬들을 우롱하는 결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현재 월드컵 이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K리그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축구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담한 사건이다.



**“축구에 해가 되는 부정과 부패, 차별과 폭력을 배격한다.”**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적힌 축구인 헌장 중 하나다. 이는 협회가 스스로 맺은 사회적 약속이다. 더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공표한 원칙이다. 협회는 이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인가! 이들이 돌아와 활동을 재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가? 후속적인 안전장치는 생각이나 했는가?

이번 사면 결정은 승부조작 재발 방지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이를 예상한 듯 보도자료에서 “국내 모든 경기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과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승부조작도 시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을 협회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사면 대상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했다”고 하지만, 사면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주장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다. 이럴 거라면 애초에 징계는 왜 했는가!

징계의 이유와 경중은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부득불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전제한다. 제명을 포함한 징계가 흑독하며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중과 팬 앞에 나서야 하는 모든 축구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갖춰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2011년 사과문에서 정몽규 회장이 직접 말하지 않았는가! 징계의 절차와 결론에 관련한 모든 결정의 근거는 오로지 축구팬과 대중,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있어야 한다. 근거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지금의 결정이 축구의 미래를 얼마나 암울하게 하는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사회는 정말 모르는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오판이나 근거의 부족이 아니다. 이번 결정을 주도하고 동의한 모든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처절히 반성하고 사퇴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의 명예와 축구의 명예가 달린 일이다. 현장의 축구인과 축구팬이 지켜 온 축구와 스포츠의 명예에 함부로 먹칠하지 말라!

정몽규 회장과 대한축구협회에 촉구한다.

- 하나, 2023년 3월 28일 발표한 승부조작 범죄와 비위행위로 징계 중인 100인의 사면안을 즉각 철회하고 징계를 유지하라!
- 하나, 정몽규 회장을 비롯하여 해당 사면안을 제시하고 의결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는 축구팬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본 사태의 과정과 근거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

2023.03.31.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된 삶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도 함께 증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생활체육 지도자는 정규직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처우개선이 없는 무기 계약직 정부와 지자체의 임금 가이드 라인과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작해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산하 체육회에 소속된 직종으로 성인, 어르신, 유소년 체조, 댄스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면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시키고 있다. 더불어 2008년부터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특수학교, 특수학급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시설 등을 찾아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 개선 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체육전공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이 생활체육지도자여서 한번쯤 이쪽 직업을 생각하기도 한다. 나 역시도 선배, 지인 특히 직계 가족인 누나가 구 체육회 소속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하고 있었기에 학부 때 관심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처우가 좋지 않아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보라고 권유 받았다. 그 이후에 장애인체육 자원봉사를 하면서 특수체육에 눈을 뜨게 되었고, 지금은 특수체육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잠시 잊고 살아 왔었다.

나는 2019년 장애,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는 기사를 에이블뉴스 인터넷 기사에서 볼 수 있었다. 그 기사 내용은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2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불안한 고용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 사항을 지자체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도록 법제화 했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논의 사항들이 국회 토론회와 시, 도, 군에서 있었지만 이렇게 법제화된 없었기에 큰 의미를 있었다.

그 이후 2020년 8월 정부의 공기업 내 비정규직의 철폐 및 정규직 전환 시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국 228개시 시, 군, 구 체육회 소속된 장애, 비장애 생활체육 지도자 2,800여명을 2021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되어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신분으로 일반 정규직들이 누리는 매달 30~40만원 가량의 복리 후생비도 받지 못하는 호봉도 올라가지 않는 상태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정년까지 보장되지만 임금이나 복지수준으로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월)	172만	172만	172만	172만	172만	182만	189만	192만	204만	205만	208만
최저임금 (월)	95만	101만	109만	117만	126만	135만	157만	174만	179만	182만	191만
최저임금과 격차	77만	71만	63만	55만	46만	47만	32만	18만	25만	23만	16만

※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수렴하고 있음  
다음 장 계속

과연 이 급여로 전문 체육관련 전문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버티고 있었던 지도자 분들에게는 너무 허망감을 주는 일인 것이다.

이번에 글을 쓰기 위해 조사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 하나는 동일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월 200만원의 임금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체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208만원) 외 각종수당을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 지원정도나 노조교섭 등의 요인에 따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최대 월 200만원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큰 허탈감을 주는 일인 것이다.

연번	광역시	기초	월급(세전)	주요수당항목
1	강원	인제군	413만원	7급공무원 처우 준용
2	경기	의정부시	332만원	식비,교통비,근속수당,명절상여금,가족수당,복지포인트
3	전남	장성군	324만원	지자체 공무원 수준 준용
4	제주	제주시	274만원	교통비,식비,정근수당,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가족수당
5	서울	관악구	267만원	식비,교통비,근속수당,시간외수당
6	대구	북구	248만원	식비,교통비,근속수당,명절상여금
7	전북	장수군	247만원	식비,명절상여금,가계지원비
8	울산	중구	240만원	식비,교통비,명절상여금,근속수당
9	전남	고흥군	218만원	교통비(거리),명절상여금(30만*2),활동비(10만)

※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함에도 지역별로 임금격차가 극심하여 최대 월200만원까지 격차

※ 1년차와 22년차 임금이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몇몇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전라남도 체육회는 전남도청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수준을 적용하고 경기도체육회 의정부시, 가평군, 평택시의 경우 근속수당이 가산되며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지방공무원 9급 7호봉제 적용, 근속수당 전체경력 인정, 강원도 인제군체육회는 지방공무원 7급 처우,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회는 체육회가 관리하는 시설 등 타 직종 호봉제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체계를 편입시켜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광주 동구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전환에 합의했다.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연구 논문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차등 필요성과 호봉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보급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예방 차원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금가이드라인 또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른 보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호봉제 도입을 하루 빨리 하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 우리나라 각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서포터하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기대 해본다.

\* 표 1과2는 민선체육회 시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처우개선 토론회 발췌

# 잇따른 헛발질... 축구협회 수장 정몽규 리더십 치명타

## [앵커]

승부조작 가담자 등을 사면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번 사태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줄속 행정으로 인해 팬들의 신뢰를 잃은 축구협회, 정 회장을 향한 비난 여론은 여전합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지난 2011년 승부조작 사태가 터졌을 때 프로축구연맹 수장 자격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정몽규 총재.  
12년 후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는 반대로 승부조작 가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면 카드를 꺼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전면 철회했습니다.

[정몽규/대한축구협회 회장 :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축구계를 뒤흔든 이번 사건으로 체육시민연대는 정몽규 회장의 사퇴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대택/국민대 교수 : "이 정도의 운영 방식을 가진 집행부라면 집행부 모두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만에 사면을 철회하는 황당한 촌극을 포함해 정 회장의 독단적인 리더십은 늘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3년 전 고등축구연맹을 해산시켰다가 피소당했던 축구협회는 법원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내치에 허점을 드러내며 잇따라 헛발질하는 사이, 한국 축구의 외교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 회장은 4년 전 피파 평의원 선거와 AFC 부회장 선거에 연달아 낙선하더니, 올해 초 피파 평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하던 정 회장은 이번 사면 철회 사태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 유소년 선수 극단 선택 11개월 만에 이뤄진 시장 면담... 김포시, 적극 조치 약속

지난해 발생한 국내 프로축구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 선택 사건 관련, 구단주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28일 유족 측과 만나 피해 회복 등의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구단 형식상 구단주인 시장과 유족 측의 실질적 면담이 성사되기까지 사건 발생 후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시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숨진 유소년 선수의 아버지 A(48)씨는 이날 오후 김포시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날 법률대리인을 대동한 A씨는 오후 3시부터 1시간여 진행된 김 시장과의 면담에서 구단의 '직무 정지' 조치가 내려진 코치 등에 대한 해임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유소년 선수의 극단 선택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2명 등이 엄연히 김포FC라는 구단의 명예를 실추한 만큼, 김 시장이 구단주로서 이들의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게 A씨 측의 주된 요구다. 이를 김포시가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며, 유족 측은 향후 시의 결정 등을 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A씨는 "김포FC에 남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바라고 있다"며 "향후 (김포시의) 조치가 무난히 이뤄진다면 코치·감독과의 싸움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1시간여 면담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를 공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병수 시장이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과 시장이 만나 대화하고 또 시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무려 11개월 가까이 걸렸다는 점에서 김포시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단 18세 이하 팀(U-18)에서 뛰던 A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에 있는 구단 유소년팀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에는 언어폭력 등으로 괴롭힌 가해자 추정 인물들이 언급됐다. A씨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사건 발생 1년이 가까워지도록 고군분투 중이다. 지방에 집이 있는 A씨는 올해 들어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김포시의원을 만난 데 이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연을 접한 체육시민연대 등 관련 단체의 지원도 받고 있다. 단체들은 A씨 아들의 생일인 지난 14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김포시에 전달한 데 이어 21일에는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찾아 대한축구협회 측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전했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김포FC U-18 감독과 코치진에게 '징계 요청'을 의결한 점 등을 들어 지난 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유소년팀을 상대로 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내달 중에 예정됐다. A씨는 지난 20일 지도자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구단에도 관련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들어 김포FC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협회 측에 제출했다. 이 규정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구단에 벌금과 승점 감점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다. 같은 날 첫 번째 공정위를 열어 A씨 측 진술을 들은 협회는 두 번째 개최도 예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3명의 직무는 최근어야 정지됐다. 이들과 지난해 계약을 연장, 지탄을 받았던 구단 측은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공동 책임을 위한 취지였다고 항변한 바 있다. 체육계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들어 계약 유보가 유족을 위해 더 적절했을 조치라는 비판이 일부 나왔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김포경찰서는 지난 2월과 3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감사 권한도 수사권도 없는 윤리센터에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둘러싸고 뒷말이 나오자 경찰 측은 사건을 폭넓게 파악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포FC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서영길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올려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관련 지도자 3명의 조처를 하고자 했다"며 "규정과 행정이라는 명목으로 유족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 대표는 지난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유족의 뜻을 받들어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U-18팀 코치진 재계약 논란에 관해서는 "모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엄단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면서 그 당시 경질하면 나머지 선수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불가피했던 조치임을 강조했다. 당시 비대위 승인을 거쳐 코치진 재계약이 이뤄졌고 이사회에도 보고됐다는 게 서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구단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며 "철저한 행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 럭비부 '학폭'에 피해 학생 꿈 접었는데 보호처분만 받은 가해자는 명문고 갔다

2022년 6월 22~23일	럭비부 소속 가해 중학생 2명, 같은 팀 학생 성추행
6월 27일	피해 학생, 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
10월 4일	학폭대책심의위, 가해 학생들에게 교내봉사 4~8시간 등 조치
12월 13일	검찰, 가해 학생들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2023년 3월	서울가정법원, 가해 학생들에게 1호(보호자 등 감호위탁) 처분

서울의 한 중학교 럭비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학교폭력(학폭)'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운동을 그만둔 반면 가해 학생들은 럭비 체육특기생으로 유명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들은 교내봉사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모 중학교 럭비부 소속이었던 A(16)군과 B(16)군 등은 지난해 6월 전국럭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방의 한 숙소에 머물던 중 피해 학생인 C(16)군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당시 C군은 다리 부상 등으로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않아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며칠 뒤 C군은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과 B군의 행위를 학폭으로 판단했고 교내봉사 4~8시간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피해 학생 측은 당시 럭비부 감독이 '동료끼리 럭비로 함께 진학해야 하지 않겠냐'며 '참고 지나가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C군을 회유해 2차 가해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감독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유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며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바로 분리 조치하고 사과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학교 측에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럭비부장은 "C군도 제자인데 당시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C군은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A군과 B군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위해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뜻한다.

A군 등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1호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 등에게 감호위탁하는 조치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C군은 감정조절 장애, 공황장애 증상으로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럭비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일반고로 진학했다. 반면 A군 등은 유명 고교에 럭비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 측 부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함께 운동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끼리 한 번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꾸준히 사과해 왔고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의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C군은 최근까지도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의 재판 경과를 몰라 답답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는 피해 학생이 사건 처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장소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와 '소년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석권 보장'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홀로 일한다는 공포

# 폭언과 갑질 피해가 일상인 골프장 캐디

8년차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A씨(37)는 3개월 연습생 기간을 거쳐 신입 캐디가 된 순간을 잊지 못한다. “여자가 아이 키우며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한 일이었다. “캐디 150명 모두 자기 번호가 있어요. 운동선수 등 변호처럼요. 내 번호가 생겼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기뻛죠.”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은 얼마 가지 못했다. 남성 고객 4명의 경기 지원을 나간 자리였다. “너 (성관계) 몇 번까지 해봤어?” 한 고객이 명함을 주며 대뜸 물었다. 다른 고객들은 A씨를 향한 성희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고객의 음담패설은 경기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손에 쥐어 무전기기는 무용지물이었다. 무전 내용은 골프장 내 모든 캐디가 듣게 된다. A씨는 “5시간 동안 고객과 밀착해 이동하기 때문에 벗어날 방법이 없다”며 “캐디 교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다.

“우리는 섬처럼 일해요.” 14년차 캐디 B씨는 말했다. 골프장 18홀의 평균 면적은 90만㎡(약 27만평). 캐디 한 명이 최대 4명으로 이뤄진 1개 팀에 경기 지원을 나간다. 라운드가 이뤄지는 5~6시간 동안 캐디들은 각 홀에 흩어져 일한다. 골프장엔 최소한의 폐쇄회로(CC)TV만 설치된다. 골프장 카트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골프장도 많지 않다. ‘비밀 보장’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골프장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다. 탁 트인 야외 잔디밭은 어디로든 열린 공간으로 보이지만, 외부의 접근과 시선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점에서 폐쇄 공간과 다를 바 없다.

성추행·갑질 부추기는 음주·내기 골프

‘보는 눈이 없는’ 라운드에서 캐디 노동자를 향한 폭언과 갑질은 일상이 된다. 필수 코스처럼 따라붙는 음주, 내기 골프는 캐디의 ‘감정노동’을 가중한다. B씨는 “열이면 열, 열팀 중 아홉팀 정도가 술을 마신다”고 했다. 코스 내 부대시설인 ‘그늘집’에는 막걸리, 정종, 맥주 등 주류가 갖춰져 있다. 규정상 외부 음식물은 반입 금지이지만, 고객이 텀블러나 골프가방에 담아 몰래 들여온 술을 꺼내 마실 때 캐디 혼자 제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B씨는 “한 번은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드시는 고객들을 제지했다가 경기 내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방법도 다양하다. “우선 규칙을 무시하고 짧은 채로 단거리 샷만 쳐요. 캐디는 샷을 칠 때마다 ‘그린 서브’를 해야 하는데, 일을 더 시키는 거죠.”(A씨) “공을 엉뚱한 데로 쳐서 찾아오게 하는 건 다반사고요. 클럽(골프채)을 버리고 온 뒤 찾아달라고 하는 일도 있어요. 못 찾게 되면 캐디가 배상해야 하는 점을 악용하는 거예요.”(C씨) 경기 중 노상 방뇨도 비밀비재하다. D씨는 “캐디가 있어도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심다.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체 한다”고 말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는 515만명으로 사상 처음 500만명을 넘어섰다. 남녀노소가 즐기는 대중 스포츠가 됐다고 하지만 성차별은 여전하다. 수도권 골프장 2곳은 남성 고객만 정회원으로 받아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다. 무려 40년 가까이 이어진 ‘전통’이라고 했다. 반면 전국 500여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3만2000여명 중 여성 비율은 80%에 이른다.

“골프를 시작한 뒤 처음 필드 라운딩 나가는 걸 ‘머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성차별이라는 걸 지적하는 보도가 최근에야 나왔어요.” 캐디 E씨가 말했다. 그는 “공이 들어가는 ‘홀컵’을 여자 성기에 빗대고, 골프 용어를 성적 은유로 표현하는 일도 잦다. 여성비하 표현을 여자 캐디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다”며 “골프가 대중화한 이후로 골프장 예절을 지키는 사람은 더 귀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크린 골프만 치다 보니 골프장 매너 교육은 충분히 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성추행 피해 사실 알리자 ‘퇴사 권고’

캐디들은 갑질, 성희롱·성추행 피해 사실을 골프장 측에 알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사측과 고객이 ‘한편’이 될 때가 많다. 고객의 캐디 평가는 입막음의 다른 이름이다. 과거엔 대다수 골프장이 평가 항목에 ‘용모 단정’ 항목을 포함했다. 15년차 캐디 F씨는 “고객 평가는 캐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을까 봐 쉬쉬하게 된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면 사측이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캐디 연습생이던 G씨(당시 23세)는 남성 고객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고객은 8번홀을 돌던 도중 골프채를 들고 ‘어드레스(준비)’ 자세를 취하는 척하다 갑자기 골프채로 G씨의 엉덩이를 쳤다. “언니, 나 신고할 거야?”라는 말도 했다. G씨는 사건 당일 직장 상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돌아온 답은 “문제 삼는다면 퇴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G씨는 사건 발생 6일 뒤 고객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골프장엔 사직서를 내야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지난해 11월 해당 고객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는 “골프장 측에서 고객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제기하는 직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을 보여 소속 직원이 고객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의 무고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2018년 인천 드림파크CC 골프장에서는 캐디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고객에게 폭행당한 캐디를 징계해 논란이 됐다.

캐디들은 “우리는 몸종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캐디는 전문지식을 가진 경기보조원”이라며 “라운드를 나갈 때마다 고객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임한다”고 했다. B씨는 “제가 라이(골프에서 공이 멈춰 있는 위치나 상태)를 봐주고 공이 잘 맞으면 그 쾌감은 말로 못한다”며 “우리가 고객을 생각하는 만큼 캐디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290947001>

# 주간 스포츠 소식

사면 '특' 차 놓고 송구...정몽규 KFA 회장의 황당한 변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26>

[인사이드 & 인사이트] "스포츠 중계로는 볼 수 없는 그 장면"... 팬도 좋고 팀도 좋고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402/118646241/1>

인니, 선거 앞두고 강해진 이슬람주의...U-20 월드컵도 빼앗겨

<https://www.yna.co.kr/view/AKR20230330088600104?input=1195m>

울산시 체육정책 방향 잡는 체육진흥협의회 출범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154>

'16세 스노보드 세계선수권 챔피언' 이채운 금의환향

[https://www.ytn.co.kr/\\_ln/0107\\_202303301303511481](https://www.ytn.co.kr/_ln/0107_202303301303511481)

서부산권 유일 감천초 야구부 선수 부족 해체 위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919520>

인천 다이빙 훈련수영장 한 곳뿐...학생 선수들 "훈련 불편"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8108000065?input=1195m>

초콜릿 끼니 때우고 단식까지...인권위 "학생 체조선수 인권 우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5295.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5295.html)

학생 운동부 선수 경북으로 몰려... 올해 696명 전입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31514419?OutUrl=naver>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